



#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JUNE 2021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10

###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Walkill Golf Club



서울대 뉴욕동창회 (회장 조상근)에서는 5월 19일 Middletown, NY에 위치한 Walkill Golf Club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들어 가장 무더웠지만 모처럼 마스크도 벗고 그동안 변한 얼굴도 확인하면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모두 37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천병수 동문(공대70)이 84타를 쳐서 메달리스트를 하였고 켈러웨이 방식으로 계산한 시상에서는 손경택(농대57) 동문이 챔피언을 수상하였다. 손 동문은 작년에 허리 부상으로 매우 힘든 투병 생활을 하였는데 이번 대회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장학기금 모금 현황

먼저 오랜만에 개최된 동창회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고 2년 임기 동안에 처음이자 마지막 장학기금 모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 당일과 이미 우송해 주신 분들과 당일 약정해 주신 분들까지 합하면 총 \$12,700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약정하신 분 또는 추가로 보내실 분 check 보내실 곳:

Sang G. Cho

281 Orangeburg Rd.

Old Tappan, NJ 07675

(Check 는 SNUAANY 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성명	소계
\$5,000	조상근	\$5,000
\$1,000	미주동창회 금영천* 송학린*	\$3,000
\$500	정해민 성기로 김문경	\$1,500
\$300	손경택* 간호대동창회	\$600
\$200	곽선섭 김광현 김승호 오순문 우규환 윤현남 천병수 홍종만 김영만* 윤선구*	\$2,000
\$100	권정덕 김영덕 민준기 송웅길 임도혁 이 준	\$600
총액	2021년 5월 21일 현재	\$12,700

(\* 장학금 약정하신 분.)

## 골든클럽 6월 골프대회 안내



아래와 같이 6월 골프대회를 공지하오니 모두 참석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흥겨운 모임이 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날짜: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Philip J. Rottela Golf Club  
PIP exit 13  
회비: \$100  
등록: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 노아은행에서의 당부

골든클럽의 주은행인 노아은행에서 골든클럽 회비 또는 후원금 납부를 check로 하시는 경우 "pay to" 란에는 반드시 SNUAA만 사용하시고, Golden Club 도는 용도는 'memo' 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부탁해 왔습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 이홍빈 회원 교통사고후 회복 중

이홍빈(의대57) 회원께서 4/28 오후 5시경 산책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치료를 받고 회복 중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좌회전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Hackensack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셨다가 이틀 후 Trauma Center로 옮겨 1주일간 검사 및 치료를 받았는데, 뇌 속의 출혈 상태가 초기 상태 그대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 다행으로 밝혀졌으며, 넘어질 때 오른 팔을 심하게 다쳐 Velcro Support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Lower back fracture로 거동이 불가하나 waist support를 착용하고 5~6개월 몸조리를 하면서 회복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5월 6일 오후에 Kessler Rehabilitation Center로 옮겼습니다. 5월 7일 종합진단 결과 Sodium level이 낮게

## 골든클럽 6월 피크닉 안내



회원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피크닉을 준비하였습니다. 카노피아래에 바베큐 사시미 횃감을 준비하여 푸짐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으니 손주들도 함께 데리고 오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라오케 경연과 간단한 게임을 함께 하며 경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6월 17일 목요일 11시 - 3시  
장소: Rockland State Park,  
parking field #2  
문의: 김정필 (201-965-7759)  
회비: 없음

판명되어, Sodium level 조정치료를 위하여 Hackensack 병원에 재입원했다가 치료를 마치고 5월 18일 다시 Kessler 재활센터에 옮겨서 회복 중입니다.  
기회 되시는 대로 빠른 회복을 기원하여주시고, 모든 회원 가족께서도 사고 예방을 염두에 두고 늘 조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영합니다.

### 금영천(약대72)

금영천 회원은 차기 뉴욕동창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오는 7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골든클럽 운영위원회 정구멤버로 참여하여 동창회와 골든클럽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Golden Club Newsletter, Golden Club Cafe에 동창회 참여를 넓히고 각종 행사와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금영천 (약대 72년 입학)  
(T) 718-791-4397,  
(E) yckum52@gmail.com  
Kum Young-chun  
53 Fraser Street  
Staten Island, NY 10314



(왼쪽부터) 배상규 성기로 금영천

### 윤선구(치대61)

골든클럽과 동창회에 열심히 참석하여 협조해 주시며, New Mexico 8,000' 고원에 자리한 Navajo Nation(U.S. Indian Reservation)에서 내외분 함께 5년간의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하셨던 윤선구(치대61) 회원께서 시간을 내어 다시 골든클럽에 복귀하셨습니다. S. K. Yoon

160 Bergenline Ave, Closter, NJ 07624  
Cel: 201-394-9870  
Email: skyoon1668@gmail.com



손녀와 quality time을 즐기시는 윤선구 회원

## Photo Gallery - 사진으로 본 우리의 일상



서울대 춘계골프대회를 마치고 라운지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동문들 모습.



아틀란타로 이주한 곽승용 회원 부부와 5월 16일에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곽승용 김정필 손경택 홍종만 부부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상대 동문 주례모임이 5월 10일 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뉴스레터 편집팀이 14개월 만에 대면으로 모였습니다. (왼쪽부터) 김정필 윤현남 정해민 홍종만 손경택 오순문 주상선

## 회원동정

### 양인회 회원(농대 58)

서울대 총동창회 공로패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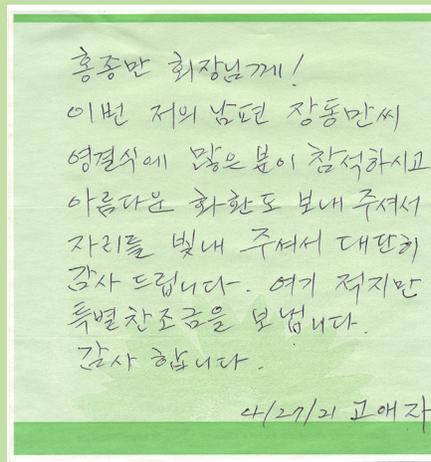
양인회 동문은 뉴욕(2013부터), 뉴저지(2016부터) 컴퓨터 연구원 강사로 봉사하여 IT 분야에 거의 문외한이던 노년층 동문에게

Microsoft Office suite 기초로 부터 Adobe Photoshop, Illustrator, InDesign 등 전문 분야까지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 컴퓨터 교실은 뉴욕 지역 동창회의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 동포들 그리고 널리 해외에까지 서울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양회원은 현재 와병 치료 중 입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강의를 계속하겠다.' 는 의지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 고애자 회원 감사의 편지

고애자 회원은 부군 고 장동만 회원의 영결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위로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글과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이 준 회원

부군 고 이기덕 회원님 1주기를 보내며 자녀들과 함께 축하 받던 어버이날을 떠올리며 자녀들과 산소에 헌화를 하면서 고인의 음덕과 사랑을 추모하였다



# Shenandoah National Park camping

홍종만 (공대64)

학창 시절에 미국을 생각하면 남북전쟁의 치열한 전투를 배경으로 한 James Stewart 주연의 'Shenandoah'가 떠오르곤 하였는데, 부인을 여의고 여섯 아들과 가족농장을 운영하며 노예제를 반대하기에 남군은 배척하고 또한 전쟁이 싫어서 북군에 협력도 거부하였지만 16세 막내아들이 반군으로 오인되어 북군에 포로가 되면서 집안은 비운에 휩싸이고, 이 아들을 찾아 나서며 자신도 전쟁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Shenandoah를 떠올리며, 1979년 가을 시카고를 떠나 뉴저지로 이주할 때 4살, 5살 애들을 뒷좌석에 잠 재우며 테네시로 내려가 스모키 마운틴, Blue Ridge Parkway를 따라 워싱턴으로 올라오면서 그리던 Shenandoah에 잠시 머물며 Luray Cavern도 방문했을 때 Virginia의 牧歌的인 풍경이 사뭇 인상적이었다.

오랫동안의 목회 생활을 정리하고 따님이 사는 Arkansas로 이주하는 중학교/대학교 친구 김재경 회원 송별을 건수 잡아 6가정이 텐트와 침낭을 준비하고 지난 4월 말 Shenandoah National Park에 3박 4일 캠핑하며 저녁이면 BBQ, 와인 양주 소주 마시며 모닥불 피워 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미 동부에는 Maine에 Acadia NP, Virginia에 Shenandoah NP, 남부에 Smoky Mtn NP가 있는데, 이중 Shenandoah NP는 서부지역의 Yosemite, Yellowstone에 견줄만한 절경은 아니지만, 가족, 친지들과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접근이 쉽고,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은 trail로 이루어져, 맑은 계곡과 끝없이 펼쳐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벌판을 내려다보면서 浩然之氣도 느껴볼 여유가 생긴다. Shenandoah NP는 Virginia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Blue Ridge 산맥 105마일 구간에 걸쳐있으며 능선을 달리는 Skyline Drive가 남부 Smoky Mountain NP까지 이어지는 467마일 Blue Ridge National Parkway 북부 구간으로, Maine에서부터 걸어서 6개월이 소요되는 Appalachian Trail도 이 지역을 지나고 있다.

첫날은 이곳에서 제일 높은 Hawksbill(4,050')에 오르는 3마일 Loop을 돌며 바위 밑에 펼쳐지는 신록의 전원을 조망(眺望)하고 오후에는 Dark Hollow Falls(70')의 시원한 물줄기로 초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었다.

둘째 날은 하이커들로 줄을 잇는 Old Rag Mtn을 올랐는데, Rock Scramble로 이어진 1마일가량을 바위 틈새를 비집고 오르내리며 긴장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확 퍼진 바위 마루에 올라서고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곳은 계속 이어지는 등산 행렬로 되돌아 내려가지는 못하고 산봉우리를 돌아 소방도로로 이어지는 다소 지루한 9.5마일 Loop trail이다.

정상에서 사진 몇 장 찍고 캠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 능선에서 성거리는 어린 사슴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지만 어

슬렁거리며 차도로 내려오는 바람에 오른쪽으로 피했지만, 쿵 하고 부딪치는 순간 사슴은 어디론가 도망가고, 왼쪽 범퍼가 찢어지며 후드가 찌그러지는 차 사고가 있었으나 운전에는 큰 지장이 없어 다행히 다음날 집까지는 돌아올 수 있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야생 동물과의 충돌, 정말 조심해야 하겠다. 동행한 일행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허허 웃고 말았지만,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다.



# 미나리 인생

김재경(공대64)

최근에 세계적인 관심을 끈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크게 기억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제93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한국의 윤여정 배우가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받은 일입니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아시아인으로서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작년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탄 것에 이은 또 하나의 한국 영화계의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80년대 한국에서 미국 아칸소 주로 이민 온 한 가족이 여러 역경을 거치며 성공적으로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실로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상하게도 정작 이 영화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한국 내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뜨겁지 못한 것을 봅니다. 내가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영화에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좁은 소견으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거의가 이민자 출신이니 나름대로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그 정도의 어려움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아닐지.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민의 경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가 좀 더 감정적이고 극적인 요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정이삭 감독 가족의 이민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거의 실화에 가까운 극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 제목을 '미나리'로 정했느냐는 질문에 정이삭 감독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에서 자녀들을 돕기 위해 오신 할머니가 여러 종류의 씨를 가져와 심었는데 오직 미나리만 살아남아 번창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생활력이 강하고 어떤 토양에서도 생존하는 한인 이민자들을 연상하여 영화 제목을 '미나리'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미나리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길러왔다는 기록이 있고 그 독특한 향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는 작물입니다. 미나리를 기르는 논을 미나리밭이라고 하는데 그 논물은 거머리가 우글거리고 똥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불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미나리는 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해독의 작용도 있다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dropwort'라고 하지만 서구에서는 식용으로 쓰지 않으니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말인지라 이번 기회에 미나리가 오히려 공용어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미나리를 한인 이민자에 비유한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대의 우리 이민 역사를 보면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한 첫 이민자를 필두로 만주 북간도, 연해주 등으로 이민이 계속되었고 5~60년대에 이르러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으로 향한 이민에 이어 독일을 향한 광부 간호원 등 이민이 있었으며 60년대 중

반부터 미국을 향한 본격적 이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후손들을 보면 엄청난 시련을 딛고 전 세계 처처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한민족의 기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연해주에 자리를 잡았던 이민자들은 스탈린의 영똥한 정책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앙아시아 별판에 내동댕이쳐졌는데 놀랍게도 살아남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그 후손들이 번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 또한 70년대 붙었던 이민 바람에 휘말리어 버젓한 직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의 한 사람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펜대만 놀리던 사람이 당장 생계를 위해 야채 가게 식당 등에서 일해야 했고 이후 조금 고급스러운(?) 보험 판매원, 부동산 중개인 등을 전전하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어 지난 35년 동안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에 소재한 10개에 달하는 한인, 백인, 흑인 등 여러 인종 교회를 섬겼으며 지금은 5년째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인도(구자라트) 회중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활발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으니 나 역시 미나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먹고 살기에 바쁘기도 하고 이민 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한 고로 동창회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치로만 느껴졌지만, 점차 생활의 안정도 찾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든클럽에 가입하게 되었고 10년째 컴퓨터 클래스, 하이킹, 골프, 합창 등 갖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하던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회원들(거의 선배님들이지만)을 만나 뵈니 한 분 한 분 모두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임을 알고 존경할 뿐입니다. 이제 인생의 종점을 향하여 갈 때 끝까지 뉴욕에서 골든클럽의 일원으로 즐겁고 평안한 삶을 마칠까 하였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미나리 일생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6월이면 완전한 은퇴와 더불어 딸 가족이 살고 있는 아칸소 주로 마지막 이주(이민)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지면을 빌어 골든클럽을 이끄시는 모든 임원 여러분과 정들었던 선배님들과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이주하는 주소: 19702 Hale Mountain Rd  
Canehill, AR 72717

# 나는 American Dream을 이루었다!

정해민(법대55)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대개 이민 1세대들은 미국에 온 이유 중 첫 번째가 “자녀 교육”이라 했다. 우리 부모도 예외는 아니었다. 70년대 초 두 딸아이 (4세, 9세) 손목을 잡고 트렁크 두 개를 끌고 케네디 공항에 내린 후 고생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미국 사회 속에서 훌륭한 career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50년 가차이 살아왔다. 다행히도 두 딸 모두 훌륭히 자랐고, 자랑스러운 가정을 만들었고 또 미국 사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career도 성취했다. 나는 오늘 자식의 외면적인 성취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골든클럽 회원

들 자체 중에는 자랑스러운 위치에 오른 사람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민 2세로서 사회 중심에서 지도자로 활동해 나가고, 부모들의 정신적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홀로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했는 가의 한 예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소개하려 한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이미 어른이 되어 같이 허심탄회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 작은 딸 Nancy가 재직하고 있는 Sidley 로펌에서 전 직원을 위해 Q/A를 한 내용이 있어 적절한 부분을 발췌하여 아래 box에 번역하여 실었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 2세대들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건강한 가치관을 구축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다. 이글은 통해 이런 2세들을 honor 하고 싶다.

내 American Dream은 이만하면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 더 욕심을 부리는 것도 과욕이요, 죄스러운 것 같고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COVID pandemic 기간, 많은 불편과 불안 속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message가 되었으면 한다.



금년 3월 Martha's Vineyard에서의 가족 vacation (왼쪽 앞이 Nancy)

## TRAILBLAZING WOMEN: Q&A with Nancy Chung WOMEN'S HISTORY MONTH AND INTERNATIONAL WOMEN'S DAY 2021

Nancy Chung은 Sidley의 집행위원회 멤버, 뉴욕에 있으며 Sidley의 소송 업무 총괄책임자, 국제 투자기금 소송업무 분야의 공동 책임자이다. 그녀의 고객에게 믿음직한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경력은 Crain's에서 "주목할 만한 법조계 여성" 중 하나, 소수 기업 변호사협회에서 "Rainmaker"로 인정 받았다.

### 변호사 업무로 매료시킨 것은 무엇이며 특히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나요?

저의 아버님은 한국 최고의 서울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셨지만, 1970년대 이민 오신 후 변호사를 전혀 못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의 유산을 계속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랐고, 법대에 다니는 조카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객들의 분쟁과 위험 사안의 종합적인 특성을 매우 좋아합니다. Sidley 로펌에 근무하면, 풍부한 전문 지식과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고, 팀으로 협력하여 고객들이 전 세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에 영감을 준 것은 무엇인지요?

부모님은 미국에서 언니와 제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영어도 서투른 30대에 서울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하

셨습니다. 많은 이민자의 이야기처럼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내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한 그분들의 이야기는 내 career의 모든 단계에서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편한 곳에 안주하지 않는 내적 추진력을 개발 하라고 나를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 담당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왜 그 기억이 생생합니까?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고객이 은밀하고 민감한 문제에 관한 "첫 번째 (외부) 전화"를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전화가 어디에서, 하루 중 언제, 누구로부터 온 전화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법률 고문 또는 다른 고위 멤버의 전화는 늦은 시간에 내 휴대 전화로 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송 절차나 마스크 노출 없이 (물론,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를 대비는 하지만)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공개적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 고객팀과 외부 법률 고문과 힘을 모아 법적 전략을 개발하고 몇 단계 앞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지금 원격 근무 환경에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합니까?

강도 높게 요리하는 것을 즐깁니다. 한국 출

신의 저의 어머니는 훌륭한 요리사와 호스트는 어떤 상황에도 식탁을 요리로 꽉 채워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년 300일 이상 저녁 요리를 하면 지겨워질 거라 생각하겠지만, 전화 확인, 이메일 답, 브리핑 읽기, 전화 통화(대부분의 시간)를 하지 않을 때면 음식 준비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외식도 자주 하지만 동시에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데도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저희 쌍둥이 십 대 아들과 남편이 주요 수혜자이며, 격리 기간 매일 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 영감을 주거나 중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 되는 말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시인 Maya Angelou는 “살면서 나는 배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것이고 또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준 느낌만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좌우명이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문화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단순하면서 심오한 진리입니다. 팀원, Sidley 안팎의 다른 동료, 가족과 친구이든 내가 매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기준을 제시하고 또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Prejudicial American Golf Journalism on the Asian Golf

정도현(공대57)

It felt like a breath of fresh air after a month-long ugly news of the recent Asian-American racial crime violence. Of course, I am talking about the thrilling Hidecki Matsuyama's historic Masters victory in his 10th Masters appearances, claiming a one-shot victory in the 85th TMT. He is the first Japanese to win a major championship in professional golf and created a hysterical sensation in the land of Japan in the year of the Tokyo Olympics with an intriguing idea of lighting the Olympic cauldron, possibly with tennis major champion Naomi Osaka.

In their haste to keep up with media frenzy, American golf pundits including Tiger Woods proclaimed that his win would impact the entire world of golf. They described the Nation of Japan as the epicenter of Asian golf, ignoring intentionally or otherwise, to mention the immense influence brought upon by Korea, Thailand, Taiwan and China beside Japan in the professional golf's global stages.

This is where I have an issue. There's no denying that Japanese were the trailblazers in the PGA such as Aoki & Ozaki brothers with modest success in the PGA tours. Shigeki Maruyama had 3 PGA wins. Until the Matsuyama's Masters win, the Koreans had much greater success starting with K.J. Choi. During the entire week of Masters, I haven't heard the name of Y.E. YANG. The first Asian man to win a major in PGA. He won the 2009 PGA Championship beating a guy named Tiger Woods, head-to-head, coming from behind, on the 72nd final hole. During the Masters, ignoring Yang's name gave an impression of Matsuyama's win as the first Major win by Asian man. On the top of that, their enthusiastic praise of Kijitani's Women's Armature win and Shibuno's 2019 British Open as the greatest Asian

Women's golf moments are a sheer nonsense compared to the total dominance of Korean women in the LPGA.

How one can forget, in 1998 US Women's Open, then 20-year-old unknown Se Ri Pak, was in contention for the major title, took off her socks, plunged into to the creek to whack at the ball plugged in embankment, and go on to win the championship in the playoff? That win triggered a Tsunami of women's golf in Korea and the rest of Asia.

In the large context of global golf, the credit should be given to the events and the individuals who deserve them. I may have been too sensitive on this issue to diminish the impact of Matsuyama's Masters title. That's not my intention. Contrarily, I am immensely impressed and proud of his achievement. Judging by his demeanor and perseverance near the end, I became a huge fan of him.

"Congratulations Hidecki", you made me a very proud Asian.



Hidecki Matsuyama



Y.E. Yang @ 2009 PGA Championship

**회원 명단 (110명 / 2021-05-20)**

강교숙	김상만	성기로	유무영	임호순	추재욱 한영수 한태진 한용웅 홍사만 홍정표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영덕	손갑수	윤선구	정도현	
강영선	김영만	손경택	윤종숙	정수일	
계동휘	김우영	손대홍/ 남종현	윤현남	조달훈/ 조승자	
고애자	김익성	손옥화	이국진	정해민	
곽상준	김인형	송근숙	이준	조상선	
곽선섭	김재경	송웅길/ 송현자	이대연	주상양	
곽승용	김정필	송학린	이대영	진봉일	
구달희	김창수	신진식/ 이정자	이범선	천병수/ 천종화	
권정덕/ 홍선경	김태일	신응남	이수호	최병우	
권영대	김현중	양인회	이용대	최수용	
권태전	노용면	오성	이전구	최순재	
금영천	민준기	오순문	이종석	최준희	
김광수	박기환	오용호	이준희	최진영	
김광현	박준구/ 최숙희	오유섭	이행순	최철용	
김동건	박희병	오인석	이흥빈	최학주	
김문경	배상규	유규환	임도혁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73명 / \$7,300 / 2021-05-20)**

강에드	노용면	신진식/ 이정자	이용대	천병수
강교숙	민준기	송근숙	이종석	천종화
계동휘	박준구/ 최숙희	양인회	이준	최병우
곽상준	박희병	오순문	이행순	최순재
곽승용	배상규	오용호	이흥빈	최준희
권정덕	성기로	오유섭	임도혁	최철용
김광수	손갑수	오인석	임호순	한영수
김광현	손경택	유규환	정수일	한태진
김동건	손대홍/ 남종현	유무영	정해민	홍선경
김병순	남종현	윤선구	조달훈	홍지복
김상만	손옥화	윤종숙	조승자	홍종만
김익성	손옥화	윤현남	주상선	홍예경
김정필	송웅길/ 송현자	이강홍	주재양	
김한중	송학린	이대연	진봉일	

**2021년 후원금 납부 명단 (21명 / \$19,300 / 2021-5-20)**

곽승용300	송학린1,100	윤선구200	정해민800
권정덕200	신진식300	이강홍200	최철용300
김한중300	양인회200	이준희12,000	한태진500
노용면200	오용호100	이행순200	
성기로300	오유섭500	이흥빈100	
손경택1,000	유규환200	임호순300	

**2021년 입학비 납부 명단 (3명 / \$600 / 2021-3-22)**

남종현  
김한중  
윤종숙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2021-05-18)**

1월		Golden Club Directory 발간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취소
4월	4월 14일(수)	Hiking - Harriman State Park 13명참가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 Sunset Valley 38명참가
5월	5월 12일(수)	Hiking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Wallkill 40명참가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 Philip J. Rottela Golf Club
	6월 17일(목)	Picnic - Rockland State Park
7월	7월 8일(목)	Golf Outing
	7월 22일(목)	Hiking or 박물관, 식물원, 유적지 방문
8월	8월 5일(목)	Golf Outing
	8월 19일(목)	BBQ Outing
9월	9월 9일(목)	Golf Outing
	9월 22일(목)	Hiking
10월	10월 6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1일(목)	Hiking or Picnic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 4일(토)	동창회 송년회

**6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문경 (약대61)
- 김우영 (상대60)
- 김인형 (미대59)
- 김재경 (공대64)
- 손갑수 (약대59)
- 송현자 (가족)
- 신응남 (농대70)
- 최병우 (공대67)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학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